

과거개체 존재에 대한 허구론적 접근*

한 성 일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

I. 이중적 사고

어제 하늘을 떠가던 구름, 어릴 적 키웠던 병아리, 소크라테스, 빙하기 때의 얼음, 공룡 등은 존재하는가? 일견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아니오 이다. 그것들은 존재했었기는 해도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물론 우리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를 느슨한 문맥에서 현재형의 형태로 기술하기도 하지만 (“소크라테스라는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가 있어”) 존재론적으로 주의를 요하는 엄밀한 문맥에서는 시제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며 그에 대한 기술을 과거형에 한정하게 된다(“소크라테스라는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가 있었다고”). 이는 우리가 과거개체에 대해 말할 때 과거시제로 제한하여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에 존재론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적어도 존재론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표명하고자 한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즉, 우리가 존재론적 견해로 현재 있는 것만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현재론(presentism)을 지지하는 존재론적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한 편 현재론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고하기도 한다.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개체에 대해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

* 이 글은 필자의 석사논문의 일부를 축약해 놓은 글이다. 여기서 필자가 옹호하고자 하는 현재론은 과거개체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개체의 존재도 부정한다. 즉 오직 현재 존재하는 것만이 실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과거개체에 대해서만 다루겠다. 필자의 논의는 미래개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로 과거개체에 대해 말하곤 한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마치 정말 실재하는 것처럼 그에 대해 마음대로 존재양화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고대 희랍의 전형적인 철학자이다”란 문장은 “ $\exists x (x$ 는 고대 희랍 사람이고 전형적인 철학자이다)”¹⁾란 문장으로 정립변역(regimentation)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차 술어 산법(first-order predicate calculus)에서 양화사의 역할과 관련해 잘 알려진 Quine의 주장을 따라²⁾ 우리는 위 문장의 변항의 값으로서 소크라테스가 (어떤 의미에서) 있어야 한다는 데에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현재 존재하지는 않지만 과거시간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의미론적 경향은 우리로 하여금 과거 개체들에 대해 자유롭게 (존재)양화하게 하고 그래서 또한 과거개체가 어떤 의미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한다. 즉, 우리가 존재론적 견해로 현재론 뿐만 아니라, 과거개체도 현재 존재하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사차원주의(four-dimensionalism)를 지지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하기 힘든 일이다.

이처럼 우리는 과거개체가 존재하는 가를 놓고 일견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 있는 것만이 존재하고 과거개체는 존재했을 뿐 결코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방식으로 사고한다. 다른 한편 우리는 과거개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정말로 (시간 차원의 다른 시점에) 존재한다고 믿는 것처럼 사고하기도 한다. 과거개체와 관련해 우리의 이런 이중적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론의 관점에서 그 물음에 대한 옳은 답변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의 과제는 다음의 물음들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론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사차원주의를 지지하는 우리의 의미론적 경향을 어떻

1) 사실 이 문장은 보다 정교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즉, 시간에 대한 양화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문맥에서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일단 무시하겠다.

2) “존재하는 것은 (속박) 변항의 값이다.” Quine(1953), p.15.

게 해명할 수 있을까? 달리 말하자면, 현재론자는 자신의 존재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과거개체에 대한 양화를 포함하는 다음의 문장들을 어떻게 분석해 낼 수 있을까?

- (1)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는 독배를 마셨다.
- (2) 한국에는 두 명의 김씨인 대통령이 있어 왔다.
- (3) 한국에는 두 명의 노씨인 대통령이 있어 왔다.³⁾

다음 절부터 필자는 이 물음에 대한 기존 현재론자의 답변들이 왜 성공적이지 못한가를 살펴보고 그 이후에 위 물음들에 대한 올바른 답변으로 과거개체에 대한 허구론적 분석을 제안할 것이다.

II. 문장연산자로서의 과거연산자 도입

푸른 백조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양상논리의 표준적인 의미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 (4) 푸른 백조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푸른 백조가 있는 어떤 (가능) 세계가 있다.

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만약 (4)의 분석항에 나타난 세계가 우리 세계와 같이 구체적인 세계이고 따라서 그 세계의 부분인 푸른 백조가 우리 세계의 백조처럼 피와 살을 가진 구체적인 대상이

3) 영어에서 과거시제는 was, have been, had been과 같이 다양하나 그에 대응하는 방식의 한국어는 없다. 물론 다양한 시제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시제에 대한 이해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굳이 대응시키자면 현재완료와 과거완료는 각각 '-해 왔다', '-해 왔었다'로 번역할 수도 있다. 필자는 번역어의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2), (3)의 시제를 현재완료에 해당하는 번역투로 사용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미안한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과거개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다. 즉 (2)는 모두 과거개체에 대해서 (3)은 과거개체와 현재개체에 대해서 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기로 한다.

라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4)와 같은 분석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푸른 백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 푸른 백조의 존재를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푸른 백조의 존재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사람은 (4)와 같은 분석과는 다른 방식의 분석을 제시해야 한다.

한 가지 잘 알려진 방식은 ‘-할 수 있다’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연산자로 간주함으로써 그 연산자 안에서의 양화사의 값에는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다. \diamond ($\diamond p$ 는 ‘p인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도록 해석)를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해석된 문장 연산자로 도입하면⁴⁾ (4)와 같은 분석은 다음처럼

- (5) 푸른 백조가 존재할 수 있었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diamond (푸른 백조가 존재한다)

와 같은 분석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한 대로 푸른 백조는 양상 연산자 안에서 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론자(actualist)는 그것들에 대해 존재론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

현재론자는 과거개체에 대한 양화를 포함하는 문장의 경우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려 시도할 수 있다. 즉, 현재론자는 ‘-였다’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연산자로 이해하고서 그런 의미론적 역할을 수행하는 과거 연산자로 P (‘ Pp ’는 ‘어떤 한 시점에 p이다’는 것을 의미하도록 해석)를 도입함으로써 그 연산자 안에서의 양화사의 값에 대해서는 존재론적 개입을 하지 않으려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론자는 문장 (1)을

- (6) $P\exists x$ (x는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이고 x는 독배를 마신다)

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한 대로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

4) 필연성은 가능성을 통해 재정의된다. 즉, p가 필연적임은 p가 거짓임이 가능하지 않음으로 정의된다.

는 과거 연산자 안에서 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론자는 그것들에 대해 존재론적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현재론자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과거연산자를 도입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과거문장을 적절히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론자는 문장연산자로서의 과거연산자를 도입해서는 (2), (3)과 같이 여러 시점에서의 다수의 개체들에 대한 양화를 포함하는 문장(‘다수개체문장’이라고 부르자)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다. (1)과 (2), (3)이 다른 것은 (1)은 한 시점 내에서의 과거 개체에 대한 진술인 반면 (2), (3)은 다수의 시점 내에서의 다수의 과거 개체들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이다.⁵⁾ 그래서 일단 우리가 과거 연산자(즉 P)는 과거의 한 시점에 제한된 진술을 이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면 현재론자가 (2), (3)을 분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복잡성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현재론자가 P를 일관적으로 적용하자면 (2)를

(7) $P \exists x$ (x는 김씨인 한국의 대통령이고 $P \exists y$ (y는 김씨인 한국의 대통령이다))

와 같이 분석할 수는 있다.⁶⁾ 이러한 분석은 과거개체에 대한 존재론적 개입을 차단해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는 과거개체들에 대해 마음대로 양화하는 우리의 의미론적 현상을 해명하는 데에는 성공적이라고 보기 힘들다.⁷⁾ 더더욱 현재론자는 (3)에 대해서는

(8) $\exists x$ (x는 노씨인 한국의 대통령이고 $P \exists y$ (y는 노씨인 한국의 대통령이다))

5) 유사한 문제가 양상 연산자를 통해 분석하려는 양상론(modalism)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것과 관련하여서는 Hazen(1976), Lewis(1986), pp.5-20을 참조.

6) 이러한 번역의 시도는 Lewis(2004), p.6가 고려한 것이다.

7) 별로 실패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2) 대신 “조선왕조에는 27명의 왕이 있어 왔다”는 문장을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라.

라고 분석함으로써 결국 (2), (3)이 서로 정확히 동일한 표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 (8)과 같이 사실은 서로 다른 논리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해야만 한다. 하지만 단지 (2), (3)에 사용된 이름의 값이 현재 존재하는 개체인가 과거개체인가에 대한 여부가 왜 그 두 문장의 문법적 또는 논리적 구조를 다르게 만든다고 주장해야만 하는가? 과거연산자 P를 도입하는 현재론자가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현재론자는 문장연산자로서 과거연산자를 도입하는 것과는 다른 더 나은 설명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다.

Ⅲ. 대행자(surrogate)에 대한 양화로 이해하기

푸른 백조가 존재할 가능성을 (피와 살을 가진) 푸른 백조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세계의 존재로 분석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푸른 백조의 존재 가능성으로부터 원하지 않는 구체적인 푸른 백조의 존재를 추론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위 (4)와 같은 표준적인 분석을 거부해야만 하는가? 꼭 그렇지는 않다. 그 분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서도 존재론적인 부담을 더는 방식으로 푸른 백조나 그것을 포함하는 세계를 구체적인 존재자가 아니라 추상적인 존재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⁸⁾ 다시 말해 David Lewis와 같이 위 (4)와 같은 분석에서의 분석항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가능세계 구체론(concretism)과는 달리 사실 우리가 (4)의 분석에서 양화하고 있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들이라고 하는 추상론(abstractism)을 취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론자는 과거개체에 대한 존재를 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1), (2), (3) 문장을 분석하려 할지도 모른다. 즉, 소크

8) 예를 들어, Plantinga(1974), Adams(1974), Stalnaker(1976). 가능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들의 설명은 (사태들의 최대일관 집합, 명제들의 최대일관 집합, 세계가 그럴 수 있었던 방식들의 집합) 약간씩 다르다. 필자는 이후부터는 Plantinga의 것을 따르도록 하겠다.

라테스는 독배를 마셨다는 (1)의 문장에서 우리가 양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와 같이 피와 살을 가진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의 본질 혹은 헤시이티(haecceity)⁹⁾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론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과거개체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소크라테스의 본질은 (빨강이란 속성이 그런 것처럼) 현재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론자는 이런 소크라테스임 또는 소크라테스의 본질이란 대행자에게 소크라테스가 할 것으로 기대했던 의미론적 역할을 대행시킬 여지가 있다.¹⁰⁾

물론 과거개체의 본질 또는 헤시이티를 도입하는 것은 적지 않은 형이상학적 논란거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¹¹⁾ 하지만 필자는 여기서 그런 형이상학적 문제들은 일단 체쳐 두고자 한다. 지금 필자는 현재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미론적 현상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론자가 과거개체의 헤시이티를 도입함으로써 그의 시도가 성공적인가의 여부를 필자는 의미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의미론적 측면에서도 과거개체의 헤시이티를 도입하려는 현재론자의 시도는 문제가 있다.

대용론적 현재론자는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셨다”는 과거 진술은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임 (또는 소크라테스의 헤시이티)에 대한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그런 현재론자는 (1)을

(9) 소크라테스임은 독배를 마셨다

와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독배를 마시려면 잔을 들 손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마실 입이 있어야 하고 독약이 스며들 장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물론 소크라테스는 그것들을

- 9) 개체 x 의 이것임 또는 헤세이티란 x 임이란 속성 또는 x 와 동일함이란 속성을 의미한다.
- 10) 실제로 Adams(1986)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Adams는 미래 개체의 헤시이티의 존재는 부정한다.
- 11) 예를 들어, 개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개체임이란 속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Markosian 2004, pp.54-6) 그 추상적 존재자의 존재론적 본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Lewis 2004, pp.9-11)

가지고 있었겠지만) 소크라테스임과 같은 추상적 존재자는 그러한 물리적인 요소들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존재자가 아니다. 추상적 존재자는 따라서 결코 독배를 마실 수 없다. 따라서 대용론적 현재론자는 (9)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가?

- (10) 소크라테스임이 시점 t 에 예화 되고, 그것은 t 에 독배를 마신다.

우선 위 (10)과 같은 분석에 ‘시점 t 에’라는 부사구 수식어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자. 현재론자는 ‘시점 t 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현재론자는 사차원주의자가 하듯이 그것을 현재와는 다른 시간 차원이 실재하여 그 중 시점 t 에 소크라테스가 우리가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있고 거기서 독배를 마신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 현재 시간이란 무엇인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필자와 당신과 지구뿐이라고 해 보자. 그렇다면 현재 시간이란 당신과 필자와 지구의 부분전체론적인 합(mereological sum)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가 현재 시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독립적인 존재자로서의 현재 시간이 별도로 존재해서 (마치 상자처럼) 그것 안에 필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필자가 당신과 필자와 지구의 부분전체론적인 합 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과거 시점 t' 에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가? 사차원주의자는 이것에 대해서도 앞서 현재 시간에 대해 했던 것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즉 그것은 시점 t 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부분전체론적인 합 의 한 부분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론자는 그와 같은 설명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의 부분전체론적 합은 또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론자는 ‘과거 시간 t' 에’와 같은 부사구 수식어에 대한 다른 설명을 해야 한다.

현재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에 독배를 마신다’를 일종의 2항 관계로 (이를테면, 추상적인 독립적 존재자로서의 시간 t 와 소크라테스와의 관계)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¹²⁾ 하지만 이러한 답

변은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고 굳어진 시간 t 를 생각해 보자. 만약 위 답변이 옳다면 굳어짐은 우리가 생각하듯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속성일 수 없다. 그것은 그저 소크라테스와 t 사이에서 성립하는 -에 굳어짐 과 같은 일종의 이항관계가 되어 버릴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항 속성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속성에 적용되어 결국 모든 일항 속성을 일종의 관계로 간주하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므로 추상적 존재자를 끌어들이므로써 문제에 대처하려는 현재론자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적이라고 하기 힘들다.¹³⁾

게다가 't에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한 문제를 차치한다고 해도 대응론적 현재론자는 외견상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두 문장이 사실 다른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야만 한다.

(11) 현재 한국의 몽통코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다

를 보자. 일견 (11)은 (1)과 정확히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가진 문장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적 현재론자는 (1)의 논리적 형식이 (10)과 같다고 해야 하기 때문에 (1)과 (11)의 논리적 형식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해야만 한다.¹⁴⁾ 현재론자가 (1)과 (11)이 같은 논리적 형식을 공유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우리가 (11)을 진술할 때도 사실 노무현 대신 노무현의 헤시이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현재 개체들에 대해 진술할

12)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선우환(2001), pp.95-8에서 나타난 양상 추상론에 대한 비판을 빌어와 시간 추상론에 적용한 것이다.

13) 일항 속성을 일종의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귀결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응적 현재론은 또한 변화의 퍼즐과 관련하여 현재론적 입장이 가지고 있던 가장 중요한 이론적 매력 중의 하나(한시적 내재성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를 잃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필자의 석사논문 I부에서 다루고 있다.

14) 대응적 현재론자가 표면적으로 동일한 구조를 가진 (2)와 (3)에 대해서도 그것들이 서로 다른 논리적 형식을 가진다고 주장해야 한다는 것 또한 명백하다.

때조차도 그 대상이 아니라 그 대상의 헤시이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상한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듯이 과거개체에 대한 양화를 추상적 존재자에 대한 양화로 이해하는 것은 사차원주의를 지지하는 우리의 의미론적 경향을 해명하는 데에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대용자에 대한 양화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의미론적 현상을 해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미론과 관련해 다소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존재론적 부담을 덜기 위해 행해진 것이 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IV. 원초적인 것으로서의 시제화된 양화사 (tensed quantifier)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는 것이나 김씨성을 가진 두 명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다. 그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는 과거 사실들의 진위 여부에 대해 모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과거 시제로 표현된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문장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누가 분석을 필요로 하는가?(Lewis 2004, p.11)

글쎄, 적어도 필자에게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러 시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선명하지 못한 다음의 문장

- (12) 바로 왕이 죽이려 했던 향후 삼십년 사이에 태어날 모든 유대 사내 아이들 중에서 유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지도자가 나왔다

는 진술이 선명하게 이해되는가? 적어도 필자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필자보다 명민하여 그들에게는

(13)과 같은 문장이 더 이상 분석되지 않고도 자명하게 이해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우리는 시제화된 양화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은 보통의 양화사와 같은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가? 명백한 대답은 시제화된 양화사와 보통의 양화사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자는 보통의 양화사와는 달리 존재론적 함축을 갖지 않는다는 것일 게다. 즉, 두 명의 김씨성을 가진 대통령이 **있어 왔다**는 것은 그 두 개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원초적 현재론자는 ‘있어 왔다’와 같은 시제화된 양화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즉 과거 개체들만을 그것의 값으로 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시제화된 양화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3)에서의 ‘있어 왔다’란 시제화된 양화사는 존재하는 것, 즉 노무현도 그것의 값으로 가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와 (3)은 동일한 시제화된 양화사에 의해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왜 (2)에서의 ‘있어 왔다’는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에 걸쳐 존재론적 개입을 차단하는가 하면 (3)에서의 ‘있어 왔다’는 노태우와 노무현 중에서 부분적으로만 존재론적 개입을 차단하는가? 무엇이 시제화된 양화사의 작동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게 하는가? (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에) 유일한 설명은 그 차이는 (2)와 (3)을 이해할 때 우리가 (2)에서 양화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모두 ‘있었다’를 적용하면서 (3)에서 양화되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한번은 (즉, 노태우의 경우) ‘있었다’를 한번은 (즉, 노무현의 경우) ‘있다’를 적용하는 데서 비롯한다. 그렇다면, (2)와 (3)에서 시제화된 양화사를 원초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암묵적으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분석을 더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따라서 시제화된 양화사는 암묵적인 분석에 의존함으로써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을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의미론적 현상을 해명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지 않은가?

도대체 시제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길래 현재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존재론적 개입을 피할 수 있는가? 일상적으로 사차원주의자와

같이 다수의 시간 속의 다수의 개체들에 대해 그것들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 양 자유롭게 양화하는 의미론적 경향성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현재론자는 이러한 물음에 대답해야만 한다. 그러나 시제화된 양화사를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묵언하는 것은 그러한 설명에의 요구를 애초부터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까지 현재론자가 사차원주의를 지지하는 우리의 의미론적 현상을 해명하려는 세 가지 시도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필자의 논의가 옳바르다면 그러한 시도들은 모두 실패거나 만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현재론자가 자신의 존재론적 주장을 견지하려면 그들은 이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모색해야만 한다. 이 글의 남은 부분에서 필자는 그러한 시도로 필자 자신의 새로운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V. 양상 허구론

양상논리의 표준적인 의미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 (13) 당나귀가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말하는 당나귀가 존재하는 어떤 가능세계가 있다

와 같은 분석을 받아들일 것이고 게다가 당나귀가 말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참이라고 믿는 사람은 (13)의 분석에 의해

- (14) 말하는 당나귀가 존재하는 어떤 가능세계가 있다

는 것을 믿는 셈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말로 (14)가 참이라고 믿는가? 그는 우리 세계의 당나귀와 말한다는 점에서만 다른 그런 구체적인 당나귀가 다른 어떤 구체적인 세계 안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가? 하지만 그가 말하는 당나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가 그러한 것을 믿고 있는 셈이라고 생각하기

는 힘들다. 다른 한편 우리는 (14)와 같은 것을 말하는 데에 별다른 불편함을 갖지 않는다. 우리는 가능개체와 현실개체에 대해 함께 말할 때에도 그 둘 사이에 어떤 존재론적 차이를 상정치 않고 그것들에 대해 자유롭게 존재양화한다.¹⁵⁾ 여기서 우리는 현재론자의 존재론적 직관과 사차원주의자의 의미론적 직관의 이중성과 평행적으로 현실론자(현실적으로 있는 것만이 존재한다)의 존재론적 직관과 가능론자(현실적인 것 이외에 순전히 가능한 것도 존재한다)의 의미론적 직관의 이중성을 보게 된다. 따라서 양상의 경우에 이러한 우리의 이중적 사고방식을 해명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시간의 경우에서의 이중성을 해명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럼, 양상성과 관련해 우리의 이중적 사고방식을 해명하는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이 Gideon Rosen(1990)에 양상 허구론(modal fictionalism)이란 이름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극단적 양상 실재론의 의미론적 장점은 모두 (모두가 아니라면 거의 대부분) 취하면서 그에 따르는 믿을 수 없는 존재론은 거부하고자 한다. 그의 기본적인 착상은 위 (14)의 분석항을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허구가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양상 허구론자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당나귀의 존재 가능성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은 엄밀히 말해 (14)가 아니라

- (15) 당나귀가 말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오직 그 경우에 세계의 다수성에 관한 어떤 허구에 의하면, 말하는 당나귀가 존재하는 어떤 가능세계가 있다

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15)와 같은 양상 허구론자의 분석은 우

15) 가능세계를 추상적으로 보는 것은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과거개체를 추상적인 것으로 보는 시도가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의미론적 직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능세계 및 가능개체에 대한 우리의 의미론적 직관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구체적** 대상들(가능개체든 과거개체든)에 대해 자유롭게 존재양화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의 의미론적 직관을 제대로 포착한다고 가정하도록 하겠다.

리가 말하는 당나귀가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말하는 당나귀의 존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가를 보여 준다. 그것은 “코넨 도일의 소설에 의하면 흠즈는 베이커 가에 산다”는 것이 참이겠지만 그렇다고 ‘코넨 도일의 소설에 의하면’이란 허구 연산자 안에서 존재양화된 것 (즉, 흠즈) 이 존재한다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또한 양상 허구론자는 일상적 대화의 맥락에서 우리가 (14)를 진술할 때 그 앞에 허구 연산자가 암묵적으로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엄밀히 말하자면 (14)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4)를 참으로 간주하곤 하는가를 설명해 준다. 허구론자는 (14)에서 나타난 가능세계 및 가능개체에 대한 가장적(apparent) 양화를 보통의 존재 양화의 함축을 가지지 않는 일종의 말하기 방식(*façon de parler*)으로 해석한다.¹⁶⁾ 그것은 우리가 “흠즈는 (의사가 아니라) 탐정이다”라고 발화할 때 (흠즈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엄밀하게는 그것이 거짓이지만 (또는 참도 거짓도 아니지만) 대화의 맥락에서 그 앞에 ‘코넨 도일의 소설에 의하면’이란 허구 연산자가 암묵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문장을 참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양상 허구론자는 현실론자의 존재론적 직관 (즉, 말하는 당나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직관) 을 견지하면서도 가능론자의 의미론적 직관의 요체를 구제할 수 있다.¹⁷⁾

VI. 시간 허구론 또는 과거개체 허구론

사차원주의자들은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는 독배를 마셨다”

16) Rosen(1990), p.328.

17) 필자는 필자의 과거개체에 대한 허구론적 접근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돕기 위해 양상 허구론을 먼저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후에 필자가 제안하는 시간 허구론이 반드시 양상 허구론을 전제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다시 말해, 과거개체와 관련해 허구론적 접근을 취하면서도 가능세계와 관련해서는 허구론적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란 문장을

- (16)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가 독배를 마셨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exists t \exists x$ (x 는 t 에 있고 x 는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이고 x 는 독배를 마신다)

로 분석한다. 하지만 필자는 (16)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 (17)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가 독배를 마셨을 경우 오직 그 경우에 과거에 관한 어떤 허구에 의하면 $\exists t \exists x$ (x 는 t 에 있고 x 는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이고 x 는 독배를 마신다)

와 같이 과거에 대한 어떤 허구에 의한 진술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이야기 선행사 또는 허구 연산자를 도입함으로써 특정 종류의 문장들을 참으로 간주하면서도 그 문장들과 관련된 개체들의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허구론적 분석의 한 변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필자의 이러한 제안을 ‘시간 허구론’ 또는 ‘과거개체 허구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제 시간 허구론자가 I절에서 살펴 본 과거개체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이중적 사고를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시간 허구론자는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는 독배를 마셨다”를 참으로 간주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분석으로 (16) 대신에 (17)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17)에서 소크라테스는 허구 연산자 안에서 양화되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재론자의 존재론적 직관을 견지할 수 있다.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의하면 햄릿은 왕자다”는 것이 참이겠지만 그렇다고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의하면’이란 허구 연산자 안에서 존재양화된 것 (즉, 햄릿)이 존재한다고 믿을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다른 한편 우리는 일상적 대화의 맥락에서 과거개체에 대해 진술할 때 항상 허구 연산자를 붙여서 말하기보다는 보통 그것이 암묵적

으로 생략되어 있다고 간주함으로써 일상적으로 (16)에 대한 진술이 마치 참인 것으로 간주하곤 한다. 이제 시간 허구론자는 우리가 엄밀히 말해 (16)의 분석항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마치 참인 것처럼 자유롭게 과거개체에 대해 (존재) 양화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허구론자는 과거문장에 대한 사차원주의자의 번역, 즉 과거시간 및 과거개체에 대한 가장적(apparent) 양화를 보통의 존재 양화의 함축을 가지지 않는 일종의 말하기 방식(façon de parler)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그것은 우리가 “햄릿은 왕자다”라고 발화할 때 엄밀하게는 그것이 거짓이지만 (또는 참도 거짓도 아니지만) 대화의 맥락에서 그 앞에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의하면’이란 허구 연산자가 암묵적으로 생략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문장을 참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시간 허구론자는 현재론자의 존재론적 직관(즉, 소크라테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직관)을 견지하면서도 사차원주의자의 의미론적 직관의 요체를 구제할 수 있다.

시간 허구론이 사차원주의를 지지하는 우리의 의미론적 현상을 잘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은 다수개체문장 즉 다수의 시간 속의 다수의 개체에 대한 양화를 포함하는 문장이 허구론의 틀 안에서 어떻게 분석되는가를 보면 더욱 분명해 진다. 시간 허구론자는 아래의 문장들

- (1)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는 독배를 마셨다
- (2) 한국에는 두 명의 김씨인 대통령이 있어 왔다
- (3) 한국에는 두 명의 노씨인 대통령이 있어 왔다

각각을 다음과 같은 (과거에 관한 어떤 허구를 ‘역사’라 하면)

- (18) 역사에 의하면, $\exists t \exists x$ (x 는 고대 희랍의 납작코 철학자이고 x 는 시점 t 에 독배를 마신다)
- (19) 역사에 의하면, $\exists t_1 \exists t_2 \exists x \exists y$ (x 는 t_1 에 한국의 김씨 대통령이고 y 는 t_2 에 한국의 김씨 대통령이고 $x \neq y$)¹⁸⁾

18) 더 엄밀히 하자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역사에 의하면, $\exists t_1 \exists t_2 \exists x \exists y$ (x 는 t_1 에 한국의 김씨 대통령이고 y 는 t_2 에 한국의 김씨 대통령이고 $x \neq y$ 이고 $\forall z$

- (20) 역사에 의하면, $\exists t_1 \exists t_2 \exists x \exists y$ (x 는 t_1 에 한국의 노씨 대통령이고 y 는 t_2 에 한국의 노씨 대통령이고 $x \neq y$)

으로 분석함으로써 과거연산자를 도입했던 현재론자와는 달리 (2), (3) 문장을 분석하는 데에 따르는 인위적 복잡성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 (3)이 (19), (20)과 같이 같은 논리적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개체를 일종의 추상적 대상으로 간주하고자 했던 현재론자가 소크라테스에 대한 진술을 추상적인 대상에 대한 진술로 이해했던 것과는 달리 허구론자는 소크라테스에 대한 문장이나 “현재 한국의 몽통코 대통령은 소주를 마셨다”와 같이 현재 존재하는 개체에 대한 문장이나 동일하게

- (21) 역사에 의하면, $\exists t \exists x$ (x 는 이러이러하고 x 는 시점 t 에 --를 마신다)

로 분석함으로써 모두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진술로 이해할 수 있다.¹⁹⁾ 마지막으로 허구론자는 시제화된 양화사를 원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현재론자와는 달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양화사 이외에 다른 종류의 양화사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인 어휘체계(ideology)를 유지하면서도 (필자에게는 선명치 않은) 모세에 대한 다음의 진술

- (22) 바로 왕이 죽이려 했던 향후 삼십년 사이에 태어날 모든 유대 사내 아이들 중에서 유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 되었던 그 지도자가 나왔다

(z 가 한국의 김씨 대통령이면 $z=x$ 또는 $z=y$). 이것은 (20)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9) 셰익스피어의 비극 안에서 햄릿은 구체적 대상이듯이 역사 안에서 소크라테스도 구체적 대상이다. 햄릿이 그 비극 안에서 보편자 실재론을 주장한다고 해 보자. 그 비극 안에서 보편자는 추상적 존재자이겠지만 햄릿은 그러한 종류의 존재자와는 구별되는 구체적 존재자이다.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더 진행할 수도 있다.

- (23) 역사에 의하면, $\exists t_0 \exists t_1 \exists t_2 \exists t_3 \exists x \exists s$ (m 이 t_2 에 ($t_1 \leq t_2 \leq t_1 + 30$ 년) 태어나고 유대의 사내 아이면 $m \in s$ & x 는 t_1 에 이집트의 왕 & $y \in s$ 이면 x 는 y 를 죽이려고하고 & $\exists u$ ($u \in s$ 이고 t_0 에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되고 t_3 에 유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지도자) & $\forall v$ (v 가 그렇게 예언된 지도자이면 $v = u$))

이상과 같이 다수의 시간에 다수의 개체에 대한 과거문장이 허구론적 분석틀 내에서 자연스럽게 분석될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시간 허구론이 우리의 의미론적 직관을 제대로 포착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²⁰⁾

필자는 현재론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의미론적 직관을 충실히 보존하는 이론으로 과거개체에 대한 허구론을 새로이 제안했다. 이 제안이 하나의 이론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과거에 관한 허구 즉 역사는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허구 연산자의 본성은 정확히 무엇인가? (그것은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개념에 의해 분석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과거개체 허구론의 존재론의 성격은 어떠한가? (시간 허구론은 완전한 유명론적 이론인가?) 또한 과거개체 허구론자는 현재론에 제기되었던

20) 현재론자는 현재 존재하는 개체와 과거개체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론에게 있어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Sider(2001), pp.25-28는 “현재 한국의 어떤 철학자는 고대 희랍의 어떤 철학자를 존경한다”는 과거문장이 현재론자에게 문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첫째, 의미론적 문제. 그 과거문장을 현재론자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그 문장을 허구론적 현재론자가 분석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앞서의 논의를 통해 충분히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둘째, 형이상학적 문제. 어떻게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대상(즉, 과거개체) 사이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석사논문 IV.2에서 다룬다. 다시 말해 과거개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한 의미론적 문제는 다수개체문장 문제의 한 사례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허구론적 입장에서는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문제들을 기존의 현재론자들보다 더 잘 해결할 수 있는가? 허구론적 접근을 취함으로써 현재론자가 새롭게 가지는 문제는 없는가? 허구론적 접근을 취한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재론의 문제는 없는가? 이러한 중요한 물음들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겠다.²¹⁾ 다만, 필자는 이 글에서 과거개체에 대한 허구론적 접근이 기본적으로 어떤 착안에 기초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케치를 제시하려 노력하였고 이러한 접근이 기본적으로 현재론자에게 매우 유력한 대안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에 일단 성공적이었기를 기대한다.

21) 이 물음들에 대한 답변은 필자의 석사논문에서 다루고 있다.

참고문헌

- 선우환(2001), 「양상 이론의 딜레마」, 『철학적 분석』 제3호, pp.85-111.
- 한성일(2005), 「변화의 퍼즐과 현재론: 과거개체 존재에 대한 허구론적 접근」(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Adams, R. M.(1986), "Time and Thisness", in T. Uehling, and H. Wettstein (eds.) *Midwest Studies in Philosophy, XI*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315-329.
- _____ (1974), "Theories of Actuality" in M. Loux (ed.) *The Possible and the Actual: Readings in the Metaphysics of Modal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190-209.
- Hazen, A.(1976), "Expressive Completeness in Modal Languages", *Journal of Philosophical Logic* 5, pp.25-46.
- Lewis, D.(2004), "Tensed Quantifiers", in D. Zimmerman (ed.)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vol.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3-14.
- _____ (1986), *On the Plurality of Worlds* (Malden, MA: Brazil Blackwell).
- Markosian, N.(2004), "A Defense of Presentism", in D. Zimmerman (ed.) *Oxford Studies in Metaphysics, vol. 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47-82.
- Plantinga, A.(1974), *The Nature of Necessity* (Oxford: Clarendon Press).
- Rosen, G.(1990), "Modal Fictionalism", *Mind* 99, pp.327-54
- Quine, W. V. O.(1953), "On What There Is", reprinted in his *From a Logical Point of View*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pp.1-19.
- Sider, T.(2001), *Four-Dimensionalism: An Ontology of Persistence and Time* (Oxford: Clarendon Press).

Stalnaker, R.(1976), "Possible Worlds" in M. Loux (ed.) *The Possible and the Actual: Readings in the Metaphysics of Modalit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pp.225-34.